

신안 '염전 노예'...경찰 무사 안일 잇단 질타

"인권유린 사태 제대로 파악 못해 발생" 인터넷 논란 확산

단속 계획 공개하고 단기간 처리... '생색내기' 그칠 우려

신안군 외딴 섬 염전에서 40대 장애인들이 수년 간 노예처럼 혹사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광주일보 2월 7일자 6면)과 관련, 인터넷에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역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전남 경찰의 안일함 뿐 아니라 경찰이 '뒤늦게' 내놓은 합동 점검 계획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신안군 염전의 '노예 장애인' 구출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이 지난 6일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유인해 '염전 노예'로 삼은 혐의(영리약취 및 유인 등)로 직업소개소 직원인 고모(70)씨와 염전 주인 홍모(48)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염전 노예'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순위에서 오르며 인터넷과 SNS 등을 뜨겁게 달궜다.

우선,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감도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이 가장 많았다.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이상현(@

Honey7939)씨는 "섬이 워낙 많다고는, 행정적으로 치안관리가 허술한가 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적었다. @wangtong 77이라는 누리꾼은 "드러난 섬 염전 노예는 '코끼리 꼬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딴 섬 등 작업장에서 불법 소개 직업소개소 직원인 고모(70)씨와 염전 주인 홍모(48)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염전 노예'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순위에서 오르며 인터넷과 SNS 등을 뜨겁게 달궜다.

전남 경찰의 도서지역 인권 침해 사법 특별 단속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부실한 수사 계획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이 적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목포경찰과 전남지방

경찰청이 신안군 신의면 '염전 노예' 사건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서 지역 인권침해사법 특별 단속'을 떠나며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목포경찰이 적시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주간에 걸친' 단속 기간과 관련, "조용히 단속해도 될까말까한 판에..."라며 "(해석하면)'섬노예' 걸리면 우리(경찰)도 문제가 되니 알아서 잘 숨기거나 단속 전 처리하기 바란다'는 것"이라고 울려 비꼰다.

또 "불법도박장 단속에 날라 공개하고 하나요?", "2월10일 단속할텐데 싸게싸게 처리하쇼!", "섬노예 꼬집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했다. 노예범죄자들

이 증거인멸하고 도망가란 겁니까. 전남경찰은 제 정신인가", "불시단속을 해도 다새나가는판에 미리 예고해서 시간 벌어주냐"고 비난했다.

접근하기 힘든 섬이 많은 점을 감안, "2주 만에 어떻게 전남의 많은 섬들을 단속할지 궁금하네요. 결과 지켜보겠다"며 경찰의 수사계획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6년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신안군이 '공개 사과'에 제발 방지 약속을 한 내용을 찾아 올리며 "달라진 게 없는 염전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농어촌 초등학교

37곳은 신입생 '無'

입학식도 못치러

여수 거문초교 등 전남지역 농어촌 소규모 학교 37곳이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1만5941명으로 지난해 1만4999명보다 942명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신입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급 편성을 한 결과, 여수 거문초교 등 분교 3곳과 목포 유달초교 등 분교 34곳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도서·벽지 분교로 3~4년 안에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나해에도 분교 5곳과 분교 33곳 등 38개 학교에 신입생이 없었고, 2012학년도에는 48개 학교, 2011년도에는 33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신입생이 단 1명인 학교도 지난해 29곳(분교 11곳, 분교 18곳)에서 올해 33곳(분교 7곳, 분교 26곳)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올해 도내에서 통폐합되는 초등학교는 분교 3곳, 분교 4곳 등이다. 지난해에는 분교 1곳과 분교 9곳이 사라졌다.

/박정용기자 jwpark@kwangju.co.kr



'눈속을 뚫고'

나흘째 이어진 대설특보 속에 눈 폭탄이 쏟아져 주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9일 눈 쌓인 강릉시내를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연철뉴스

1m '눈 폭탄' 강원 동해안 피해 속출

눈구름대 태백산맥 못넘어 광주·전남엔 영향 없어

지난 6일부터 강원도와 경북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눈적설량이 1m를 넘으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미시령 83.5cm, 진부령 85cm를 비롯한 강릉 54cm, 대관령 48cm 속초 48cm 등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이 지역에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집이 무너지고,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임시 휴업이나 졸업식 등 행사를 연기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9일 강릉과 양양, 속초, 삼척, 고성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초·중·고 및 유치원 등 41개 학교가 오는 10일 임시

휴교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릉 18개 학교, 양양 5개 학교, 속초 10개 학교(유치원 1곳 포함), 삼척, 5개 학교, 고성 3개 학교 등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은 일부에 눈발이 흠날렸을 뿐 큰 눈은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고기압과 남쪽의 저기압이 부딪치면서 가장 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게되고, 바람 타고 동해안의 수증기가 유입돼

백산맥과 충돌, 눈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많은 양의 눈을 뿌리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지역은 만주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서해안을 거치면서 눈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동해안의 눈구름대는 태백산맥을 넘지 못해 광주·전남지역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오전 3mm 안팎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영하 6도~6도)보다 조금 높겠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4분
해질 18시 09분

달출 14시 13분
달질 03시 45분

아침에 찬바람

구름 많은 가운데 눈 내리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3/6℃
목포	구름많음	-3/4℃
여수	구름많음	0/5℃
나주	구름많음	-5/6℃
완도	구름많음	-2/5℃
구례	구름많음	-2/7℃
강진	구름많음	-4/5℃
해남	구름많음	-4/5℃
장흥	구름많음	-4/6℃
순천	구름많음	0/7℃
영광	구름많음	-5/4℃
영진	구름많음	-2/5℃
전주	구름많음	-3/5℃
군산	구름많음	-3/5℃
남원	구름많음	-3/5℃
혁신도	구름많음	0/2℃

종형	파고	김기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종형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목포 11:20 03:5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3.0m	23:14 17:0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3.0m	06:43 13:0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18:50 00:00

◇주간날씨

날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씨						
최저/최고	-4/6	-4/6	-3/7	-1/7	-2/8	-3/7

"김용관 무죄는 사법부 굴욕"

광주 시민단체 특검 요구...정평위, 오늘 남동성당 시국 미사

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전보 발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광주일보 7일자)되자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시국 미사를 열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10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시국 미사를 연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정평위 소속 신부와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평위는 시국미사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광주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기관 대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 시국회의'는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 판결을 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재수사 실시와 '불법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광주 시국회의는 "법원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국정조사 때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거부한 김용관 전 청장의 거짓 변명을 사실이라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황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초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료 등이 함유되지 않은 3무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고객상담실 080-234-6588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줍니다.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